

“영역별 수준 파악·학습방향 점검”

9월 모평 이후 학습전략

상위권, 문제풀이 집중
중위권, 취약범위 확인
하위권, 단원별 개념정리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9월 모의평가가 끝났다.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9월 모평을 활용해 대입 학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4일 광주지역 입시전문가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9월 모평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목표 대학을 최종 점검하고, 수능까지의 영역별 학습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시간 분배가 부족했다면 실전 연습을, 취약한 단원이나 유형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는 등 성적별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우선 상위권 수험생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에 대한 개념 정리와 출제 경향 분석을 마치고 본격 문제풀이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신유형과 고난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기보다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전체 문항을 고루 풀어보는 것이 좋다. 설사 정답을

맞혔더라도 풀이과정에 이해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개념을 정리하고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를 활용해 별도로 정리해 둔 뒤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중위권 학생들은 우선 자신이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자신 있는 과목 위주로 공부하기보다는 부족한 영역을 점검해 틀리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먼저 본인에게 취약한 범위를 확인하고, 개념 이해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자. 개념 정리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념 정리가 끝난 뒤에는 EBS 연계 교재나 수능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면서, 수능 유형에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위권 학생들 또는 일부 과목이 매우 취약한 경우,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 개념 이해부터 시작해야 한다. 개념 이해가 없는 상황에

서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실력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원별로 주요 개념부터 하나씩 정리하고, 수능 연계 교재의 해당 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비교적 쉽게 출제되는 범위를 먼저 학습하고, 점차 학습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난도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단계의 문제부터 접근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입시전문가는 “9월 모의평가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참가한 시험으로서 올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대부분이 치렀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학습 방향을 점검하는 수능 마무리 공부 활용에 필수적이다”며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까지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마무리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광주교대 에듀테크 사업 본격화

30일까지 참여 기업·교원 모집
지역 중견·스타트업 활약 기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광주교육대학교가 학교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의 연결을 위한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광주교대에 따르면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는 에듀테크 현장 적용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현장 수요에 맞춘 에듀테크를 발굴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의미한다.

지난 4월 KERIS의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구축 및 운영 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광주교대는 주관 기관인 광주시교육청, 공동 주관 기관인 광주시와 함께 학교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의 연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교대는 16일부터 30일까지 1차년도 에듀테크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선정된 기업은 교원 컨설팅단 등과 함께 학교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 개발,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학교현장 적용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

에듀테크 사업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운영되며 주관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주관해 에듀테크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 이에 대한 운영은 광주교대가 담당한다. 특히 광주시의 인공지능 정책과 기조를 함께하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에듀테크 스타트업 및 중견 기업의 활약이 기대된다.

광주교대는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구축을 다음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인공지능 등 미래지향적인 에듀테크에 대한 실험과 경험을 함께할 수 있는 체제준도 함께 구축해 개발할 계획이다.

최고성 광주교대 총장은 “미래교육을 위한 생태계 조성,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미래교육모형 확산, 현장 맞춤형 기술 확보, 운영 성과의 적용 및 확산 등 미래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광주서부교육청 직원 화합 도모
‘아·무·말’ 대잔치 소통함 눈길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직원 간 소통 및 화합을 위한 ‘아·무·말(아아!! 무소 말이라도 해봐야!) 대잔치’를 운영하고 있다.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아·무·말 대잔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피로도 가중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원 간 심리·정서적 안정망 구축 및 수평적 상호존중의 배려 문화 형성을 위해 지난달부터 추진됐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운영지원과 유경아 총무팀장 기획으로 청내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소통창구 ‘아·무·말 대잔치 소통함’을 마련했다. 직원들이 미담사례, 요구·건의사항 등의 사연을 작성해 소통함에 넣으면 매일 1회 둘째 주 수요일 ‘아·무·말 음악방송’을 통해 직원 간 공유된다.

건전한 비판과 직원 간 단합 유도를 위해 소개된 사연 중 ‘아·무·말 베스트’를 월별로 선정하고 12월에는 ‘올해의 아·무·말 베스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최근 첫 실시한 ‘아·무·말 음악방송’에서는 8월 중 접수된 ▲당직실 환경개선 ▲전화통화연결을 서비스 등 건의사항 11건이 소개됐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아·무·말 대잔치 소통함’을 통해 수집된 직원들의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든 소중히 생각하고 귀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함평영화학교는 최근 배추, 무, 갯 등의 모종과 씨앗을 심고 가꾸는 학교 텃밭 가꾸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전남교육청 제공

함평영화학교 텃밭 가꾸기 체험

함평영화학교는 최근 배추, 무, 갯 등의 모종과 씨앗을 심고 가꾸는 학교 텃밭 가꾸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은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6개 학급, 중학교 4개 학급, 고등학교 4개 학급, 전공과 2개 학급 별로 각 반에 배정된 텃밭에서 실시됐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별 학급 단위의 텃밭에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각 학급의 텃밭에서 배추와 무, 갯 등의 모종과 씨앗을 심고 가꾸는 활동을 했다. 10월에는 갯을 수확하고 11월 중순에는 배추와 무를 수확, 수확물을 활용해 김장 같은 풍습과 겨울철 문화적 특성을 학습할 계

정이다.

함평영화학교 전승주 교장은 “앞으로 학생들이 주기적인 텃밭 관리와 관찰을 통해 생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장기간의 노력과 수고로움을 직접 체험하고 계절에 알맞은 다양한 교과 활동 연계를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텃밭 가꾸기를 통한 인성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확대

온라인 37과목·406명 대상

전남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37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을 마감한 결과 최종 406명을 확정해 15일부터 수업에 들어간다.

전남교육청은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 인원을 최대 1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공학일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여행지리, 국제경제, 화학

실험, 고급생명과학 등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진로선택 과목을 개설했다. 소수 교과과 교사가 없는 도서 지역 학교를 위해 화학1, 물리학 I, 생활과 윤리 등 일반선택 과목을 개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대면수업으로 이뤄지는 2학기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도 72과목이 개설돼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할 예정이다. 지역대학교와 연계해 15개 과목 개설도 추진 중이다.

박경희 중등교육과장은 “우리 지역은 소규모학교가 많아 고교학점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공동교육과정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나라 기자

전남대 석사과정 정영재씨, 캐나다 재단 연구장학생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이 캐나다 국가재단의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됐다.

14일 전남대에 따르면 석사과정 정영재씨(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BK21 기후저능형 간척지농업 교육연구팀·사진)가 캐나다 MITAC 재단의 Globalink 연구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정씨는 10월부터 약 4개월간 알버타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이오차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 연구’에 참여한다.

또 이에 필요한 항공료와 체재비를 포함해 2,000만 원을 MITAC 재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알버타 대학으로부터 400만 원의 연구 지원금도 함께 받는다.



정영재

캐나다 MITAC 재단은 1999년 설립된 국가 장학재단으로, 캐나다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캐나다 현지에서의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캐나다 알버타 대학교와 2017년에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이나라 기자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연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운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